

# 국민연금, 전북생산물 구매 실적 대폭 증가

### 지난해 상반기 구매액 13.2억원 대비 9.3배 늘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의 올해 상반기 전북지역 생산품 구매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업체 구매액은 123.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구매액(13.2억원) 대비 9.3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현재 신축 중인 제2사육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30%이상으로 할당하여 계약 체결했고, 그 외 인분물, 사무용품, 사육관리 사업에 지역업체 활용을 크게 높인 것이 주요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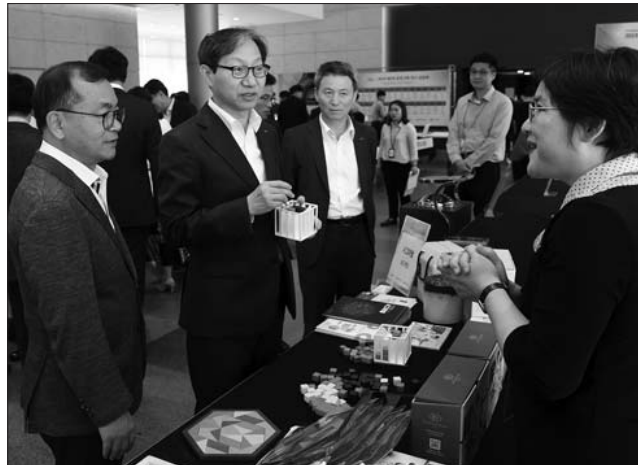
최근 3년간 지역업체 구매액 추이를 보면 12.6억원(2017년), 22.9억원(2018년), 123.2억원(2019년 상반기)으로 매년 크게 증가해 왔다.

이는 작년에 추진한 '지역생산물 위

한 작은 실천'(구내식당 식자재는 지역 로컬푸드에서, 책은 동네서점에서 구매)을 시작으로, 올해는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원칙하에 '지역제한 입찰제',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 등 국가 계약법상 지역 우선구매 가능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업체에게 입찰가 접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공단의 지역생산품 구매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창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의 올해 상반기 전북지역 생산품 구매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HOT한 더위 날려버릴 COOL한 우리 땅 이야기가 펼쳐진다

### LX, 스마트국토엑스포 개최

짙던더위를 화악~ 날려버릴 대한민국 땅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펼쳐진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가 주관하는 국내최대 우리 땅 공간정보축제인 '2019스마트국토엑스포'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민들을 찾아간다.

2019스마트국토엑스포는 '공간정보의 융합, 스마트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총 23개국 정부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85개 기업 186개의 전시 부스가 방문객의 발길을 기다린다.

또한, 공간정보 새싹기업프로젝트 등 4가지 창업지원프로그램과 공간정보아카데미 교육 간담회, 특성화 학생대상 모의 면접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창업·구직자에게 소개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800여명의 내빈이 참석하는 첫날에는 LX 최창학 사장과 KAIST 김대영 교수, 에스리(esri)社 리처드 버든(Richard Budden) 본부장과 세계측량사연맹(FIG) 제7분과 다니엘 파에즈(Daniel Paez) 위원장 등 이 4차 산업혁명과 공간정보 융합에 관한 미래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별대담으로 식전행사의 문을 연다. 이후, 김현미 장관의 개회사와 윤호중, 송석준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지며, 오르한 에칸(Orhan Ercan) FIG 부회장과 KT 김병석 상무의 초청강연이 진행된다.

오후 시간에는 글로벌 선진기술 컨퍼런스나 UAV(무인항공기)포럼, 지적(地籍)간담회와 위치기존 포럼 등 8개 컨퍼런스가 열린다.

둘째 날은 디지털 트윈컨퍼런스

지적(地籍)세미나, 공간정보 데이터 세미나와 자율주행 및 정밀도로지도 세미나 등 10개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엔 지적(地籍)재조사 정책 간담회와 해양과학 세미나, 동반성장 워크숍과 측량적부심사 간담회 등 6개 컨퍼런스로 엑스포가 마무리 된다. 세상을 바꾸는 공간정보의 최신 기술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전시관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를 선사한다.

지난 해 대비 행사장 면적은 151%(5,164㎡), 전시부스는 130%(197개)로 늘려 쾌적하고 다양한 체험공간을 제공한다.

엑스포의 대표적인 즐길 거리로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용해 세계 유명 대표건물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내 손 안의 랜드마크' 4

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인 공간정보로 탄생한 각종 센서들의 원리를 배우면서 공놀이를 즐길 수 있는 '인터랙티브 볼슈팅' 등이 있다.

또한, 최초로 디지털트윈 기술로 구현한 전북혁신도시에서 체험자가 홀로그램을 활용해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해보는 '디지털트윈기반의 홀로그램' 등 10여 종의 체험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이 외에 '전시장으로 떠나는 휴가'라는 테마로 비즈니스 미팅과 휴식공간을 TV모니터를 활용해 시원한 해변가 분위기로 센스 있게 조성한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최창학 사장은 "뜨거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하고 쾌적한 첨단공간정보의 세계로 자신 있게 초대 한다"며, "행사가 우리 땅과 관련된 각종 공간정보에 관한 쉬운 이해와 함께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의 교두보가 될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NH농협은행, '올원뱅크 X 제로페이 서비스' 출시

NH농협은행은 모바일 플랫폼 올원뱅크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올원뱅크 X 제로페이 서비스'를 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은 40%로 높이는 계좌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및 민간 결제사업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올원뱅크 X 제로페이 서비스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QR코드 촬영이

나 QR코드 / 바코드 제시'를 선택해 결제할 수 있고, 제로페이 이용내역 조회, 가맹점 현황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8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2개월 간 '올원뱅크 X 제로페이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1회 1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1만 명에게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을 지급하는 '만민(萬萬)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윤상 기자

# 한전 전북본부, 다문화 가정 어린이 여름 방학 캠프 시행

한전 전북본부(본부장 정은호)는 여름 방학을 맞아 전북 관내에 있는 다문화 취약 계층 자녀 30명을 초청, 놀이 기구 체험 및 축구 관람 등 함께 어린이 초청 캠프 행사를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행사는 한전 전북본부를 비롯하여 관내 시, 군 다문화 지원 센터, 전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전북현대모터스, 1365 자원 봉사 포털을 통해 선발한 관내 대학생 10명 등 봉사단원 30여명이 참여했다.

다문화 취약 계층 자녀가 안전하고 즐거운 방학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봉사단원 1명이 다문화 가정 자녀 2명을 인솔할 수 있도록 조를 편성했으며, 인솔 단원과 자녀 간 친숙해 질 수 있도록 대화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행사는 무더위 속에서 아이들의 눈높이를 감안해 완주군 고산면에 위치한 실내 놀이기구 체험장을 방문하고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행사도 가졌다.

/김영태 기자

# "겨울 여행, 미리 준비하세요"

### 이스타항공, 7일까지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 실시

이스타항공이 매달 1일마다 출발 3~4개월 전 항공권을 미리 구매할 수 있는 '이스타's Early Bird'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1일부터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시작해 8월 7일까지 일주일간 탑승기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항공권 특가 운임을 오픈한다.

또한, 해당 이벤트를 통해 국내선 4개 노선, 국제선 22개 노선 등 총 26개 노선에 대해 판매가 진행되며 편도총액운임 최저가 ▲국내선 1만4800원부터 ▲국제선 46,2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매달 1일 출발 3~4개월 전 항공권을 미리 구매할 수 있는 이스타's Early Bird 특가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항공여행을 계획하고 있



는 고객들이라면 정기 이벤트를 활용해 합리적인 가격의 여행을 준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istarjet.com) 및 모바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영태기자

# 한국 전통음료 오미자, 인도네시아 첫 수출길 올라

### 'K-Food Fair' 수출상담회 성료

연평균 25°C이상의 고온다습한 날씨로 쉽게 변질되지 않는 뷰음이나 튀김요리가 많은 인도네시아 음식에 찰떡궁합인 한국의 전통 여름음료 '오미자'가 첫 수출 길에 오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지난 7월 25일부터 4일간 인도네시아에서 '2019 자카르타 K-Food Fair' 행사를 개최하여 총 2천 235만 달러(약 260억 원)의 수출상담과 918만 달러(약 108억 원)의 현장 수출계약과 MOU를 체결하며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경제력 있는 중산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과 웰빙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건강식품들이 각광받고 있으며, 음료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첨가물이나 기능성을 꼼꼼히 따져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듯, 한국의 오미자음료와 나주 배즙과 같은 천연음료나 비타500과 같은 기능성을 요들이 바이어들에게 큰 관심을 끌며 약 30억 원의 수출계약이 체결되었다.

인도네시아 첫 수출 길에 오르게 된 문경오미자 벨리(영)의 박종락 대표는 "지난 8년 동안 아세안시장 진출을 위해 세밀한 조사와 현지 입맛에 맞는 오미자음료를 연구개발한 결과, 이번 행사에서 첫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뷰음은 고추가 들어간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제2의 불닭볶음면'로 불리며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떡볶이'가 대형유통업체와 38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떡볶이의 대중화에 나섰다.

또한 이번 자카르타 K-Food Fair에는 11만 명의 현지인이 행사장을 찾아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즐기며, 행사장의 흥을 한껏 높였다.

K-POP가수 에이스(A.C.E)의 초청공연에는 많은 소녀 팬들이 몰렸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연계한 타오버스 캐릭터 쇼에는 가족 방문객들로 하루 종일 붐볐다.

aT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이번 자카르타 페어는 K-Food Fair 행사가 시작된 2013년 이래 가장 많은 수출상담과 최대 수출계약을 달성했다"며, "까다로운 현지 합법인증 획득과 수출통관컨설팅 등 실질적인 수출업체 지원으로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